

서울 총학생회장 한철수군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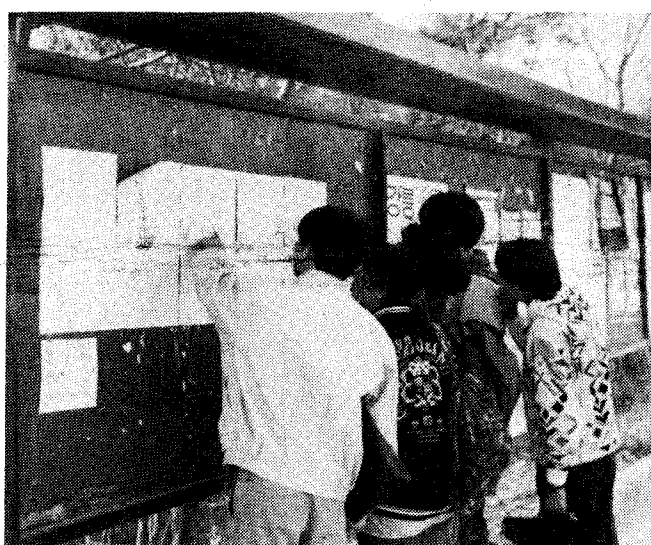
64.57%인 3천2백86표 득표해 압도적 차이로

총학생회장 박선우양

지난 21일 제23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투표결과 기호2번 한철수(신방·3) 부 최성용(법학·3)군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총유권자 8천7백7명중 58.44%인 5천89명이 투표한 이번선거에서 한철수, 최성용은 64.57%인 3천2백86표를 획득, 1천6백84표를 획득한 기호1번 이길영(정의·4) 박종대(문리대·물리·3)후보를 제치고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되었다. 당선이 확정된 후 한철수군은 '미리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여 제23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등록금 15~20% 인상될 듯 기획실장협 합의, 학생들 강한 반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예·결산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인지역 32개 사립대학 기획실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등록금 15~20%인상폭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발표된 사항은 기존의 학생과 학교 당국의 합의사항과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현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제도의 소극적 재원확보의 문제점을 모두 학생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열정”

열기에 가득찬 교정의 한해는 가을이 가고, 강의를 마친 학생들의 눈길은 어느덧 한곳에 머물러. 게시판에 붙어있는 시험시간표를 바라보는 학생의 눈에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열정이 숨어있다. <이지환 記者>

수원 총학 예·결산 보고 총대의원회 기말고사후 감사 실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학생회관에서 제23대 총학생회 예·결산 보고를 실시했다. 자치회비 1천3백12만원, 스포츠비 3백60만원, 교비지원금 3천만원 등 총 4천6백72만원의 예산중 4천6백60만7천1백10원이 지출되어 현재 11만2천8백90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총대의원회는 학기말고사 후 방학중에 총학생회를 포함한

제2의료원 내년초 착공

1천여억원 들여 전문진료중심 병원 계획

본교부설 '제2의료원'이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준비 및 세부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 104-9번지에 건립될 '제2의료원'은 기존의 일반적인 종합병원 형태에서 탈피, 진료센터 중심의 전문의료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설비·의료기기 등 총공사비 1천여억원이 투자되는 제2의료원은 지하4층·지상13층 규모로 대

이번호가 2학기 중간호입니다

‘경희인의 밤’ 12월 21일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서

총동창회는 오는 12월 29일 오후 6시30분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경희인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례적인 동문총회로 총동창회 활동, 예·결산보고, 동문 만남시간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7회 경희문학상 시상 노수민 소설 ‘그네위의 방’ 선정



경희문인회(회장 서정범 교수)가 제정한 제7회 경희문학상 ‘노수민(국문·20회)씨의 장편소설 ‘그네위의 방’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6시 타워호텔(중구 장충동 소재) 엘코비홀에서 진행된다. ‘그네위의 방’은 ‘사춘기 소녀가 방황하면서 겪는 갈등과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총장 선출방식 논의 활발

교수협·총학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부심

현임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학내 각 대표기구들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설> 오는 91년 1월 18일로 다가온 총장선출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오는 28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리게 될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1장 제3조 4항인 ‘총장임명에 관한 심의 건의’에 따른 의제로 자동상정하고, 오늘 오후 5시 교수협의회에서 각 단체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사전논의를 갖게 된다. 또한 장백기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규 대학발전위원회 학성위원장, 최희철 서울캠퍼스 인문복지위원장, 총련장 대학원총학생회장 등 4명의 각 기구대표들은 이날 초, 2차 회의를 갖고 의견 조정, 선출방식과 참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주 중으로 교수협의회의 학생측 입장 공개전달, 총장면담 등을 통해 직접적인 선출의 주체는 교수협의회의로 하되, 사전에 ‘추대(전)위원회’(가칭)를 구성, 사후에 임명동의권을 행사한다’는 총학생회안을 발의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내부문제와 단체협약등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 단일체제로 개편 총회, 토론 거쳐 구성원 의사 반영

노동조합은 지난 22, 23일 각각 서울·수원지부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조직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용역용역 문제등에 대해 수원지부와 수원캠퍼스 학교당국과의 협상에서 지부체제 운영의 미숙으로 거의 학교당국의 압력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부체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직종별 조합원회의를 거치고, 6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규약개정, 13일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원 학과신설등 정원 늘어 박사과정 32명 증원, 신방대학원 등도

일반대학원, 신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은 문교부가 91학년도 인원증원에 대한 인가를 지난 18일 통보함에 따라 9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신설학과 및 인원증원의 학칙을 개정한다. 이번에 변경된 학과와 인원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석사과정:신설-우주과학과 개편-환경보존과학과를 환경과학과로, 정원은 자체 조정 ▲박사과정:신설-전세계산학과, 산업공학과, 유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간호학과, 정원은 현재 4백63명에서 4백95명으로 32명 증원 ▲신방대학원은 출판잡지학과가 신설되고, 정원이 75명에서 90명으로 15명 증원 ▲산업정보대학원은 출판정보학과, 산업공학과 신설되며 정원은 1백25명을 1백51명으로 26명이 증원된다.

학우대중 근거한 학회활동, 과학실험 필수 조건

▼흔히 대학을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생활화하는 장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이 말에는 자유나 권리의에도 참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학회나 학생회는 다수의 학우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우들 스스로가 만들고 이끌어 갈때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최근 치루어졌던 각 과, 학회나 학생회의 ‘학술제’를 보면 학회사업이 학우대중에 기반을 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리대 문화부, 정경대 등 몇개 과의 경우도 전공분야와 함께 사회현실 전반에 대한 정보성 향상이 담긴 주제를 택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참가했던 학우들은 행사내용이 이론적 접근과 현실변혁적 지향의 결합에 실패하고 이론적인 면에 머물렀음을 아쉬워했다. 또한 준비과정, 진행과정에서 학회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자발적 참여도가 미비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어떤 학우는 충분한 학습과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다든가 또 선거, 대동제등 주변행사가 겹쳐 일정을 늦추어도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우들과 학회간의 괴리감이 두드러져 보였는데, 자신의 과 행사에조차 무관심을 나타내는 학우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이해, 요구와는 무관하게 매년 시기별, 변화없이 진행되는 학회사업에 심각하게 되는 학우들도 어쩔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학우들 스스로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끌어 가는 학생회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자발적 참여도가 미비한 경우도 있었다. 학회를 통해, 학회를 학우대중에 우선되는 문제로부터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기존의 괴리감을 벗어나는 과정에 불착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학회활동은 장기적·지속적인 계획을 세워 과전공의 특성을 살리는 ‘전문성’과 소모임 활성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학회활동은 학생회 강화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올바른 민주적 양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모교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하십시오”

경희사랑 대학주보에 있습니다

4년간정든 모교를 떠나야 하는 4학년 졸업예비생들의 마음이 왜그런지 허전해질때입니다. 푸른 꿈을 안고 동용문을 들어서던 그 시절부터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던 기억, 함께 지내던 과후배들과 정들었던 동아리활동. 그 모든것이 새롭게 느껴질 때입니다. 졸업후에도 정든 모교의 생생한 현장과 대학인의 목소리를 ‘대학주보’와 함께 느껴 보십시오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정기구독 안내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 ◇신청전화: (02)961-0094 (02)963-5849
- ◇F A X: (02)963-5849
- ◇정기구독료: 1만원 (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 ◇기타: 정기구독 신청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능한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

구독료 납부방법

아래 은행구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주택은행	계좌번호(우체국)
492325-90-1-8400	012336-0004517
제일은행	150-20-231438
조흥은행	321-04-233401
중소기업은행	017-02-0154-084
국민은행	010-01-0559-741
농협중앙회	031-01-294693
신한은행	012336-0004517
한국의환은행	131-13-06374-7
한일은행	014-045527-02-001
서울신협은행	16707-2654505
한국산업은행	151-07-293464

(이상 예금주 이 석 우)